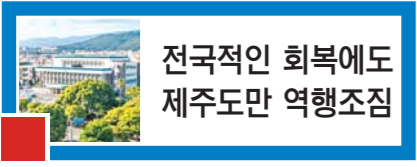


건설업 훈풍 기대했는데...찬바람만 '쌩쌩' "생산자 주도 위해 농가 결집 핵심"



전국적인 회복에도 제주도만 역행조짐

지난해를 기점으로 전국적인 건설·부동산 주요 지표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제주지역의 경우 이를 역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20일 도내 경제·건설주택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경제산업 정책회의'를 개최하고 건설·부동산 분야 현황 및 전망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하강곡선을 그리던 경제지표가 지난해 들어 다소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제주지역의 경우 주택시장 부진과 경기 둔화, 금리상승과 자금조달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더딘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도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제주지역 건설수주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148.7%, 건축허가 면적은 44.6% 증가했지만 건축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4

경제·부동산 전문가 진단
주택시장 부진·경기 둔화
규제완화 정책 체감 미미
자금 리스크 점검도 필요

5.4% 감소했다.

더군다나 도내 건설업체 대부분이 토목·건축분야임에도 타지역에 비해 영세한데다, 도외공사 수주 비율이 전국 평균 60%인데 비해 제주는 23%에 그치는 등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박동준 한국은행 제주본부 경제조사팀장은 "제주지역의 경우 수도권 지역과 상이한 흐름이 예상된다"며 "수도권 지역은 주택거래·금융규제 완화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기존 규제 완화 지역었던 제주에서의 체감은 제한적일수 밖에 없다"고 풀이했다.

이어 "지역 건설사의 수익성과 재무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분양시장 위축은 대출 부실로 이어져 자금 악화 및 투자 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제주도는 20일 도내 경제·건설주택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경제산업 정책회의'를 개최했다.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리스크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일동 한국은행 제주본부장도 "공공발주 등 건설과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인구 유입과 투자 확대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갖춰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규진 대한건설협회 제주도지회 사무처장은 "주택은 금리나 금융에 큰 영향을 받는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에 한계가 있겠지만,

건축 인허가나 심의과정을 통해 외곽 지역의 수급 조절 대책을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도는 건설산업이 생산 및 고용에 파급 효과가 높고, 도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부동산시장 안정화로 민생경제 활력을 견인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오영훈 도지사는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나 육지부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윤승빈 기자

제주연구원·도·농수축위 20일 연합회 설립 토론회

전국 최초로 생산자 주도 농산물 수급조절 모델로 추진되는 제주 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도내 농가들의 결집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연구원과 제주도,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0일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을 위한 농업인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부터 제주 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 설립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설명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은 '생산자주도 수급관리기구 설립 필요성' 주제발표에서 "생산자 주도하는 자율수급관리는 경쟁자의 존재, 무임승차자 통제 등 해결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결국 생산자와 산지주체가 스스로 결집해야 하고, 양배추는 전남 지역과 경쟁 관계를 있어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

직화연구소장은 "대다수 농가와 단체가 참여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간다고 해도 발생할 수 있는 일부 무임승차자 통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연합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며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생산자 경작·판매 신고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할 정도로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응철 소장은 "이같은 측면에서 앞으로 교육이나 홍보, 회원 관리 신청서 또는 동의서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지역의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표성을 확보한 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안경아 제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올해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감귤과 당근은 생산자단체 가입률이 80% 정도로 조직화가 된 상황이다. 시험대는 2024년부터 추진될 무와 양배추, 브로콜리 품목"이라며 "당근이 지역적으로 국한된 특수성을 가진 반면 무는 제주 전역에서 재배되고 있고, 양배추는 전남 지역과 경쟁 관계에 있어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승은 기자

무공침

"쌈쌈이 커져도 물가 걱정" "4·3 왜곡 비석 대책 필요" "스쿨존 아이들 지켜주길"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들의 쌈쌈이가 코로나19 이전보다 크게 상승했지만 물가 상승 영향과 여행 만족도 하락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등장.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4·3 당시 도민 대학살을 주도했던 박진경 대령의 만행을 적시한 안내판 설치 청원의 건을 통과.

○...대낮 초등생의 목숨을 앗아간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참변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제주지역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아.

지난해 1인당 평균 지출경비는 66만1371원으로 2019년보다 19만2332원 오른 가운데 여행 경비 만족도는 조사항목중 최저 수준.

제주지역 4·3단체 등 시민사회단체가 지난달 10일 다음 세대에 4·3에 대한 제대로 된 역사를 알리자는 취지에서 청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회의 통과 관심.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고는 2020년 11건, 2021년 8건, 지난해 14건, 올해 2건으로 매년 반복.

주변에선 "어린이들은 성인과 비교해 인지능력과 상황 판단력이 떨어져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어린이들을 지키기 위해 교통법규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 김재연 기자

주변에서는 "항공, 식음료 비용 증가폭이 커 불만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물가 상승으로 여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관광업계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한마디. 김봉철 기자

주변에선 "도내 곳곳에서는 일부 4·3을 왜곡하는 무허가 비석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제주4·3 안내판에 대해 합리적인 정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한마디. 양영익 기자

서귀포시, 일손돕기 및 기계작업 대행사업 추진

서귀포시는 본격적인 마늘 수확 시기에 인력 부족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고령·장애·독거노인 등 취약 농가를 대상으로 수확 일손을 지원하고 마늘 기계작업 대행사업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마늘 수확 일손돕기(봉사활동) 확산을 위해 이달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마늘 수확 영농지원 상황실을 운영하고 공무원, 농협, 농업단체, 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 일손 부족 농가와 연계를 통해 일손을 지원한다. 김법수 기자

양성평등교육 강사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제)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센터장 고보숙, 이하 교육센터)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여성가족부 산하) 협력기관으로 선정 돼 2023년 신규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전문강사 양성과정은 양성평등 관련 주요 이론을 기반으로 정립한 성인지 관점과 가족·교육·노동 등 영역별 양성평등 이슈에 부합하는 교육 설계 및 분석,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을 기획·수행하는 등의 강역역량을 함양하는 내용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모집대상은 양성평등 및 폭력에

방 관련 업무, 여성·사회단체 교육·정책개발·상담 등 관련 종사자, 여성학·사회학·교육학·법학 등 관련 분야 학위소지자, 각급 학교 교원, 지역 내 양성평등 강의활동 경험자 등이 해당된다. 모집인원은 30명 내외이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지원 분야 관련 근무경력, 교육수강이력, 활동계획의 구체성, 성인지 학습계획서의 충실성 등을 평가 및 심사한다. 모집기간은 4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홈페이지(www.jejeugen.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법수 기자

사단법인 대한불교 선교종 제주교구 총무원장이 취임식 및 명법사 주지 득현당 법신스님 진산식

삼보전에 귀의 하옵고,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행복이 충만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행사를 거행하오니, 동참하시어 법회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아 래

- 일 시: 2023년 4월 29일(토) 11시
- 장 소: 명 법 사 (제주시 구좌읍 하도15길 47-1(창흥동))
- 연락처
 - 총무원장 ☎ 010-6203-0481
 - 추진위원장 ☎ 010-6695-7266

※ 명법사 입구 대로변에 주차장 완비 (150대 주차 가능)

제3기 제주도 기후변화 환경리더 양성교육 대상자 모집

제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제주 환경 보전 및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시민 및 학생들에게 홍보와 교육을 담당할 환경리더 양성교육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 선착순 35명
2. 신청지역
 - 가. 신청일 현재 제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 나. 환경리더로서의 의지와 사명감을 갖고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한 자
 - 다. 환경관련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3. 접수안내
 - 가. 접수기간: 2023. 4. 24.(월) ~ 5. 3.(수) 17:00까지
 - ※ 기간 중 토요일, 공휴일(근로자의 날 포함) 제외
 - 나. 접수처 및 방법: 신청서 작성 후 방문 접수
 - 제주시 서광로 235-1(2층), 삼도1동 제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 725-0210)
 - 다. 제출서류: 2023년 제주도 환경리더 교육신청서 1부(사진부착)
 - 주민등록초본 1부(최근 1주일내 발급본)
 - 라. 상세내용 및 관련서류는 제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다음 카페참조 (카페주소: http://cafe.daum.net/jjsiagenda21)
4. 교육대상자 확정발표
 - 2023. 5. 9.(화) 카페 및 개별 문자발송
5. 교육안내
 - 가. 교육기간: 2023. 5. 15. ~ 5. 19.(5일간) 10:00-17:00(총 30시간)
 - 나. 교육장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다목적실(2층)
 - ※ 교육 세부일정 변경 될 수 있음.
6. 기타사항
 -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무효가 됩니다.
 - 나. 교육을 80%이상 이수하지 않으면 수료가 되지 않습니다.
 -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환경관리과(725-2193) 또는 제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725-02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

HYUNDAI 전기차 선착순 접수중

아이오닉5,6
GV 60, 70
G80, 전기트럭

HYUNDAI
현대자동차 서제주대리점
김 익 수

010-5722-7513
영업용 및 택시, 조달판매 제외

종사업등록번호 제 18-서귀포-2021-20-02 호

우량

감귤요목

우수한 품질의 감귤요목만 생산하여 직접 판매합니다

레드향 · 천혜향 · 황금향
한라봉 · 궁천
오하라베니 · 조경용 하귤

※ **현장방문 환영** ※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동로 268-168

제주감귤요목영농조합법인
010.7204.1286